



## 미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 조기 긴축 우려 등으로 급락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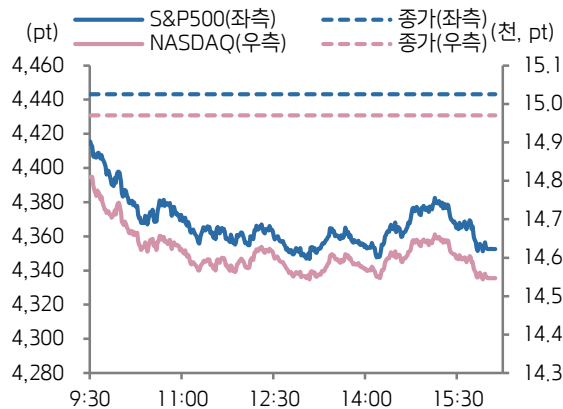
28일 (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확대 대한 우려감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감으로 확산하며 급락. 전일에 이어 미국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벨류에이션이 높은 업종/종목 중심으로 조정 야기. 하지만 금융, 산업재 등 경기민감주 업종들도 1%대로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109.3pt vs. 예상 114.4pt)이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로 부진했기 때문(S&P500 -2.04%, 나스닥 -2.83%, 다우 -1.63%).

중국 전력난과 코로나 여파로 글로벌 생산 차질 지속, 브렌트유 80 달러 상회 등 유가 상승 지속, 연준의 조기 긴축 정책 우려 확대임 등 여타 악재성 재료들이 동시에 출현. 10년물 금리는 이날 5bp 상승하며 1.53% 수준에서 기록, 약 일주일만에 20~25bp 급등.

한편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엘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은 증언 참석. 엘런 재무장관은 다시 한번 의회가 부채상한을 연장시키지 않을 경우 10월 18일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것이라 경고. 파월 의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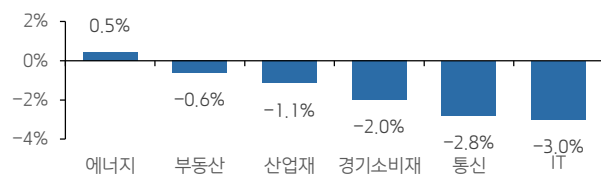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5%)를 제외한 모든 업종 하락한 가운데, IT(-3.0%), 커뮤니케이션스(-2.8%), 그리고 경기소비재(-2.0)가 2% 이상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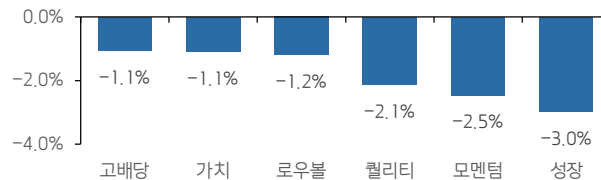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특징주

애플(-2.4%), 마이크로소프트(-3.6%), 알파벳(-3.7%), 아마존(-2.6%), 페이스북(-3.7%), 엔비디아(-4.4%) 등 대형 인터넷, IT 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 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6.9%): 뉴스트리트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의견 다운그레이드. 이 영향으로 AMD(-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8%)도 부정적으로 반응

바이오엔 테크(-10.0%), 모더나(-6.0%): 프랑스 사노피가 개발한 mRNA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급락. 이번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량 생산할 계획은 없었다지만 다음 백신에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월즈파고(-3.5%): 모건스탠리는 금융 규제 압력으로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투자의견 다운그레이드. 파월 의장은 지난주 월즈파고에 대해 자산 제한 1.95 조 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52.63	-2.04%	USD/KRW	1,184.40	+0.64%
NASDAQ	14,546.68	-2.83%	달러 지수	93.73	+0.37%
다우	34,299.99	-1.63%	EUR/USD	1.17	-0.01%
VIX	23.25	+23.93%	USD/CNH	6.47	+0.06%
러셀 2000	2,229.78	-2.25%	USD/JPY	111.50	+0%
필라. 반도체	3,314.39	-3.8%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4,321.22	-1.05%	국고채 3년	1.622	+6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2.267	+9.5bp
Eurostoxx50	4,058.82	-2.56%	미국 국채 2년	0.301	+2.3bp
MSCI 전세계 지수	728.96	-0.21%	미국 국채 10년	1.537	+5bp
MSCI DM 지수	3,095.56	-0.26%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1,267.36	+0.18%	WTI	75.29	-0.21%
MSCI 한국 ETF	81.00	-2.41%	금	1737.5	-0.8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7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8.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헝다그룹의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 지급 여부 2. 미국 마이크론 주가 시간외 급락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시총금리 급등에 따른 성장주들의 주가 추가 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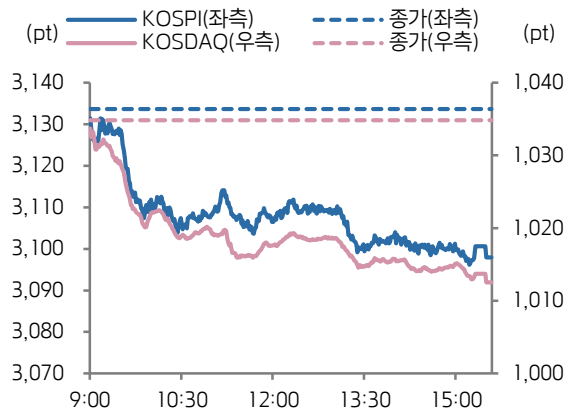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증시의 급락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 급등,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속도, 실적시즌 경계심리 등 여러 요인들이 중첩된 것으로 판단. 일단 금융시장은 연준의 물가 전망에 대해 불안과 의구심을 동시 보내고 있는 상황.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시적인 물가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듯한 진단을 내림. 더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은 지난 2 분기 이후 지속 중인 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개월 간 이어지는 현상을 더 이상 일시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예상보다 긴축 속도를 빨리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보임.

이런 맥락에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중 1.56%대에 도달하는 등 시장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연준의 긴축 사이클 강화 불안감,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한도 상향 실패 시 금융위기와 파괴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긴 했으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단기적인 정치 노이즈에 불과했으며 정권에서도 합의를 하는 결과로 끝났다는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물론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금리 방향성보다 속도에 대해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의センチ멘트가 악화됐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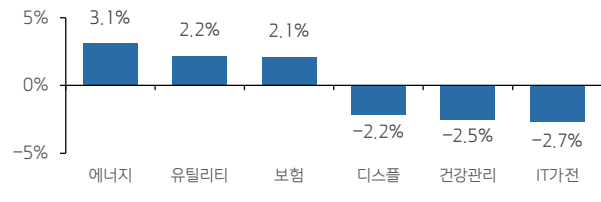
금일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에 영향을 받아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또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3~4% 내외의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게 부담요인이 될 전망. 또한 헝다그룹의 달러화 채권 이자지급일이라는 점도 장중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다만, 전거래일 국내 증시가 상기 악재성 재료들이 일정부분 선반영 됨에 따라 1%대 하락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금일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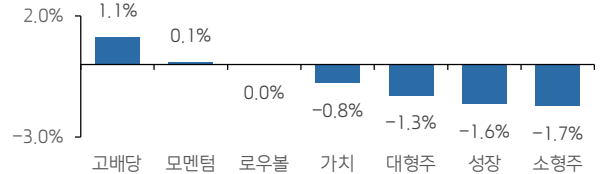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